



유능한 인재와 함께 일하라

대부분의 리더는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조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자신보다 우수한 인력을 꺼리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략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우선 똑똑하고 일을 잘하면 자신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잘하는 인력이 합류하면 조직의 성과는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다. 보통 유능한 인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이 리더의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셋째는 일을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기가 싫어서다. 똑똑하고 일을 잘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리더인 자신의 말보다는 우수 인력의 말에 더 무게를 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한 자격지심(自激之心)에서 자신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후배가 싫은 것이다.

리더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의 발전을 꾀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일 잘하는 우수 인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우수 인력을 통해서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더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수한 후배를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도 퇴보하고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가 된다. 또한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고도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일 잘하는 최고의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효과적인 협업 방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비중 있는 책임과 자율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며, 다음은 업무 시간으로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리고 중간 관리자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를 너무 작은 단위로 쪼개어 구성원들에게 맡기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여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업무 할당은 열정과 의욕을 죽이는 것이다. 또한 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시간 관리를 잘 한다. 리더가 별도의 시간표를 주고 관리를 하면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 잘하는 인재들에게는 명확한 업무목표와 타당한 기한을 제시해주

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량이 높은 사람이 중간 관리자로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면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쓸데없는 중간 관리자층으로 인하여 조직의 발전에는 전혀 기여를 못하게 되고, 결국 우수한 인재들은 조직을 떠나게 된다. 불필요한 중간 관리자층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너무나도 뛰어난 인력이 합류하였는데, 현재의 조직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도의 특별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명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뛰어난 인재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라는 것이다. 주변의 유능한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자신의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조직을 위하여 자신을 버려라. 비록 유능한 인재들에게 밀려난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조직을 위하여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라.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직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이다.*



이슬성신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Holy Dew Spirit?
露の聖神とは何ですか?

· 그것은 이기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It is the Spirit of the Victorious God.

それはお勝ちになった神様の霊です。

· 이기신 하나님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분이기에 이슬성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He who wins consciousness of 'I', Satan and overcomes death, can pour out the Holy Dew Spirit to people.

お勝ちになった神様は自分に勝って、魔鬼に勝って、死に勝った方なので露の聖神を注いで下さることが出来ます。

· 그래서 이슬성신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영입니다.

That's why the Holy Dew Spirit can enable humanity to become God.

それで露の聖神とは人を神様に作る事が出来るのです。

· 이슬성신을 받으면 먼저 영생하는 피로 변화가 됩니다.

If you take it, your blood is changed into immortal blood.

露の聖神を受ければ先に永生する血に変わります。

호박은 잎, 줄기, 껍질, 씨 등이 모두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약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거나 '호박이 떨어져서 장복으로 굴러 들어간다'라는 속담을 봐도 호박이 얼마나 좋은 것을 상징하고 유익함과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큰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호박은 무엇인가? 바로 복에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에 감탄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삶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100세를 넘기면 축하할 일이 되고, 평균 100세도 못 살고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인류가 해결 못한 크 나른 숙제이다.

속담 속의 영생학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태초에 사 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도를 닦으면 영생의 신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자식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을 원하시는 진정한 신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도 자동차, 로켓, 스마트폰 등 수많은 창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는 전지전능한 이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창조라 할 수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고 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진정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

는 곳이다. 누구나 살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생명이요 하나님이다. 하늘나라의 학문이 참 학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으며 눈물과 탄식, 분열과 시기, 원망과 질투가 없다.

우주에서 처음으로 진짜 학문 영생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 승리제단으로 오라! 새해에는 진정한 복을 받아라!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영생의 복을!*

참고는 가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을마년이 가고 병신년이 왔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송구영신의 시절이다. 단순히 달력상 해가 바뀌는 송구영신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필자로서는 우주사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즉 '송구(送舊)'는 구(舊)천지를 없애버리고 '영신(迎新)'은 신천지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본다.

구(舊)천지를 없애버리고 신천지를 맞이하자

구천지란 마귀가 권좌에 앉아 사망의 권세를 쥐고 우주천지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곧 인간의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니 인생들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천지란 마음의 천지를 의미한다. 구세주하나님께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고 밝혀 주셨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죽는 것은 결국 마귀 때문이다. 증산선생은 "목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도전5:411:1)"라고 하였으니 그 목은 하늘이 바로 마귀요 인간의 마음속에 폭군으로서 즉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면서 인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천지란 구세주하나님(미륵불 정도령)께서 마귀가 인간 속에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사망의 권세를 쥐고 마침내 그 생명을 잡아먹으니 그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고 마귀가 앉아 있던 그 권좌를 도로 찾아 좌정하셔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즉 구세주하나님이 내가



송구영신(送舊迎新) 병신년 새해의 나의 결심

되시니 기쁨과 쾌락 속에서 우주를 한 순간에도 수없이 날아다니는 대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천지는 구세주하나님의 세계이다. 빛의 세계이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송구영신이 곧 천지개벽이요, 수승화강(水昇火降)이요, 성령으로 거듭남이요,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원시반본(原始返本)이요, 신인합일(神人合一)이요, 시천주(侍天主)요,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완성이요, 도통(道通)이다. 그 주인공이 구세주하나님이요, 미륵불이요, 정도령이요, 증산선생이 말한 대우주이요, 15진주(眞主)이다.

수승화강이 되어야 천지개벽

태초에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겼다(天神負而地鬼勝(천신부이지귀승), 격암유록 그 결과 하나님이 현재의 인간으로 전락이 되니 화기(火氣, 地鬼 2火)가 위에 있고, 수기(水氣, 天神 1水)가 아래에 있게 되어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 되어 병들고 늙어 죽는 것이다. 수승화강 즉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게 되면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 이것이 천지개벽인 것이다. 이 우주도 그와 같은 이치로 인하여

바뀌니 천지개벽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귀를 죽여 없애는 권능은 감로해인(이슬성신, 감로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 감로해인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 육천 년간 고군분투하신 것이다. 감로해인은 그야말로 만병통치, 만사형통, 만사여의(萬事如意), 살마광선(殺魔光線)이며 용으로 말하면 여의주에 비할 것이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다. 신천지 조화의 핵심이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다 감로해인을 받아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불사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세주하나님은 감로해인을 값도 없이 가득하게 부여 주시지만 인간들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감로해인을 임의용지(任意用之) 하시는 구세주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이다. 수운가사(水雲歌)에 "만날 사람 만났으니 너희집안 운수로다"의 만날 사람이 바로 구세주하나님이다. "성경신(誠敬信) 석자로 닦으며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리라(도전11:277:4)"에서 참사람은 진인(眞人)을 말하는 것이다. 진인이란 진아(眞我, 참나)를 회복한 사람이고 진이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궁(宮)이다. 즉 구세주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구세주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신

을 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한다.

진리는 이처럼 한 치의 빈틈없이 딱 맞으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감로해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를 듣고 알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어느 경전에 듣기만 하는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고 행하는 나무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유불선 어느 경전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구세주하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다. 진리의 말씀을 정성스레 듣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충분조건이 되리라.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마음 문을 열었다가 된다고 본다.

고요함을 얻으려면 우선 입을 닫아야

어느 철학자는 무극(無極, 천당, 극락)의 경계를 적막무진(寂莫無聲)한 경계라고 표현하였다. 고요할 적(寂) 고요할 막(莫)자이다. 상대적인 교요가 아니라(상대적인 교요는 교요할 정靜자를 쓴다) 절대적인 교요이다. 무진은 없을 무

동한 고생만 하고 헛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마귀의 발동 때문이다.

말없는 가르침(無言之教)이 큰 가르침이요, 가르친다는 생각조차 없는 가르침이 참다운 가르침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자유율법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필자 스스로에게 체재시킬 한다.

구세주를 초초로 바라보고 입을 봉하자

그래서 새해를 맞아 필자의 소박한 결심이라면 "입을 봉하라. 입을 봉한 중에만 구세주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라"이다. 말을 한다면 구세주하나님의 입으로 말을 하고, 구세주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구세주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봉하라.

구세주하나님이 총론을 말씀하시면 구세주하나님을 따르는 필자는 각론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에서만 머물러 아니라 가장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행할 때인 것 같다. 나라는 것이 마귀라고만 해서 그 마귀가 죽지 않을 것이기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수처작주(隨處作主).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는 구세주하나님의 자유율법대로 행할 뿐이다. 입을 봉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now and here)에서 오직 실천이 있을 뿐이다. 송구영신 합시다!*

박명하 / 본부제단 4지역장